공산주의로 파괴된 몽골 불교… 과연 재건될까?

학인스님 교육제도 개편
'부활 신호탄'

박영빈 객원기자

공산주의의 탄압 하에 철저히 파괴됐던 몽골불교가 다시금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6월 5일 새로운 법등을 밝히기 시작한 몽골불교의 시도를 집중보도했다.

몽골 북부의 초원에 위치한 아마르바야스갈란트 사원은 현재 몽골불교의 부활을 상징하는 사원이다. 몽골 3대 사찰 중 한 곳인 이 절은 18세기 청나라 황제였던 옹정제의 보시로 지어졌다. 하지만 전각은 전성기의 절반을 조금 넘는 28개소만 남았다. 3,000명에 달하던 스님들은 현재 겨우 40명만이 남았고, 주지스님의 나이는 겨우 35세이다. 그러나 사원은 남아있는 경전들을 보존하여 교육체계를 새롭게 세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

10살 남짓한 사미들을 가르치는 롭상 따양 스님은 4년간의 기본 교육만을 마친 상태다. 스님이 출가할 당시 전통 강원 제도가 완전히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롭상 스님은 "나 스스로도 충분히 지식을 갖추지 못했는데 사미승들을 가르치다는 게 부끄럽다"며 멋쩍게 웃었다.

학인 스님들은 모두 오전에 불경을 외운다. 티베트 불교 문화권인 몽골에서는 중요한 논서와 기도문은 모두 암송하는 것이 기본이다. 어린 사미 스님들은 오후에 문학과 수학 같은 일반 과목을 배운다. 다른 학인들은 논리적인 문답을 통한 교학적인 체계를 배운다. 일반과목의 교육을 제외하곤 전통 강원의 교육체계를 최대한 따르고 있다.

롭상 스님은 "요즘엔 청정히 계를 지키는 스님을 매우 보기 힘들다"며 흐트러진 계율에 대해 염려를 드러냈다. 현재 몽골불교의 어려움은 출가자들의 청정지계와 젊은 출가자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1924년 소련의 위성국가로 세워진 몽골인민공화국은 수립과 함께 몽골의 전통신앙이었던 불교와 샤머니즘을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1,250개소 이상의 사찰들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폐쇄됐다. 사찰에 있던 예술품들은 소각되거나 외국으로 팔려나갔다. 반혁명분자로 몰려 처형된 몽골인들 가운데 스님들만 18,000명이 넘는다. 그 결과 10만 명에 달했던 스님들은 공산정권의 붕괴 직전이었던 1990년에 단 110명 뿐 이었다.

하지만 몽골불교의 뿌리는 천천히 힘을 키우고 있다.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승원의 기강과 교육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 되고 있다. 몇몇 사원들은 단 2주의 방학 외엔 학인들이 산문을 나가지 못한다. 절에 정주하면서 스스로가 출가자라는 자각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아마르바야스갈란트 사원의 경우 25세가 넘은 스님들에게만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 전자기기를 허락하고, 사원내의 모든 인터넷 회로를 제한했다. 역시 좀 더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또 전통강원이 남아 있는 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스님들도 늘고 있다. 인도나 네팔, 티벳으로 유학을 떠난 스님들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 몽골현지에서 본격적인 교육체계의 복원과 부흥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차원에서도 불교의 부흥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밀집 지역과 떨어진 사찰들에 편의시설을 짓거나 사찰의 복원들에 예산을 내고 있다. 유학을 떠난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아마르바야스갈란트 사원의 부주지 롭상탑땐 스님은 "숲을 베어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것은 오래 시간이 걸린다"며 어린 학인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일에 조급해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10년의 몽골정부의 인구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3퍼센트가 스스로를 불교도라고 밝힌 반면 38.6퍼센트는 종교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여전히 공산정권 시절의 여파가 남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몽골의 젊은이들에 대한 재포교와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시 한 번 몽골의 정신문화에 올바르게 자리 매김하려는 몽골불교의 미래가 주목된다.


경전을 암송하는 사미 스님들. 사진출처=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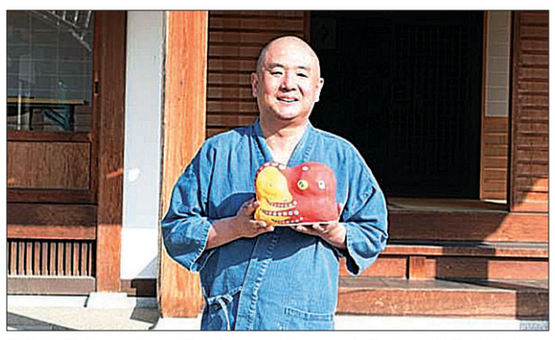

아침예불을 위해 모이는 학인스님들. 사진출처=reuters.com

일본서 스님 수제 인형 '돌풍'

절아이들 조용히 시키려고
하나씩 쥐어주던 흙부처님
손에 부처님 쥐고 좋아해
동일본대지진때 피해자에
나눠주자 부적이라며 열광

일본 불교계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방법으로 불교포교를 위해 나서고 있다. 그 중에도 인형을 포교로 활용하는 스님이 있어 화제다.

일본의 여성지 '우먼 익사이트'는 6월 17일 수제인형을 만드는 일본 오카야마(岡山)현 쿠라야시키(倉敷)시에 소재한 사찰 코조지의 아마노 코유스님에 대해 보도했다. 스님이 만든 인형과 그림들은 지역 상품관을 넘어서 도쿄의 잡화점이나 인테리어 샵에 납품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스님은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자부하며, 지역 라디오 방 패널, 불화나 불상을 모티프로 한 인형과 엽서 제작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쿠라야시키 스님의 장난감 공방'을 세워 인형들을 제작하고 있다.


직접만든 엔키모노를 들고있는 코유 스님. 사진출처=우먼 익사이트


코유 스님이 처음 만들었던 흙부처님. 사진출처=우먼 익사이트

코유 스님은 "절에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열었다. 아이들이 많이 온 것은 좋았으나 40명이 넘다 보니 너무나 시끌벅적 해졌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용히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처음엔 작은 공방에서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처음 인형을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스님은 한 손에 들어가는 크기의 작은 흙부처님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을 손에 쥐고 기도하게 했다. 아이들은 그러면 이내 "내 손에 부처님이 들어왔다"며 조용해 진다고 한다.

코유 스님은 "부처님이 마음에 들었는지 집에 가지고 돌아간 아이들도 있었다. 흙부처님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아이들이 생기면서 달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처음 만든 흙부처님을 보여주었다.

코유 스님의 인형들이 일약 유명해진 계기는 동일본대지진이었다. 스님은 "지진 이후로 여진이 생길까봐 노이로제에 걸렸다는 피해자의 상담을 받았다. 그에게 불화를 하나 그려주곤 매일 반야심경을 한편씩 외우라고 충고했다. 그러자 이전처럼 여진에 대한 걱정이 줄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스님은 '지진의 흔들림은 없애지 못해도, 마음의 흔들림은 멈출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흙부처님을 만들었다. 메기를 밟고 있는 모습의 '지진막이 부처님'이다. 일본에선 땅속의 메기가 움직이면 지진이 난다고 믿었던 전설에서 유래했다.

불상을 만들어서 지진의 피해를 입은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자 곧바로 소문이 났다. 스님은 "지역언론에서 취재가 오고, 구매를 원한다는 사람이 급증했다. 지진을 막아주는 부적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진정한 부적은 부처님께 매일 손을 모아 안정된 마음이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스님은 공방을 세우고 나서 새로운 인형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엔키모노라는 전통인형이다. 엔키모노는 옛날 절이나 신사에서 참배자들에게 증정하던 인형이다. 불상이나 천신, 동물들을 모습으로 만든 엔키모노는 액을 막고 복을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코유스님은 "흙부처님을 만들다보니 엔키모노까지 생각이 미쳤다. 최근에 수제 엔키모노를 증정하는 곳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하기로 했다"고 공방을 세운 취지를 말했다. 스님, 부처님, 동물들을 모티프로 삼아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 엔키모노들은 도쿄의 인테리어 샵에서는 입하와 동시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이다. 스님이 만들었다는 말에 더욱 인기가 좋다.

코유스님은 인형을 주문받으면 일일이 상자에 부처님의 일러스트를 그려서 발송한다. "자신 가까이에 신앙의 형태로, 가볍게는 인테리어로 즐겨주길 바란다"고 스님은 앞으로도 인형을 통해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이슬람 국가 최초 불탑 건립

스리랑카 이주자 원력으로 바레인서



이슬람 국가 최초 불탑〈사진〉이 세워졌다.

스리랑카의 온라인 매체 '데일리 FT'는 6월 15일 이슬람 국가인 바레인에 스리랑카 이주자들이 처음으로 불탑을 세웠다고 보도하며 매우 상징적이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바레인에 거주중인 불교신자들을 위해 건립된 이 사원에는 다양한 불교 시설물이 배치됐다. 특히 스리랑카 이주자들과 현지 불자들이 많은 불상과 벽화 등을 후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사원에는 예불을 드릴 수 있는 공간과, 명상의 공간이 마련돼 불교신자들의 정신적 피난처가 될 전망이다.

박진형 기자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내원궁 회향선원에서
부처님 진리를 배우고 실천 하세요
재가불자 내원궁 회향선원에서는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생활하실 재가불자님을 모집 합니다.
내원궁 회향선원 입주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입니다.
5년 동안 1인 1실 원룸에서 생활하고, 모든 숙식은 내원궁 회향선원에서 제공해 드리며, 5년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즉, 생활 전액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조건입니다.
2인 1실은 보증금은 1억이며, 재가불자에 한하며 스님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많은 문의 및 방문 바랍니다. H·P 017-201-0037

▲ 1인 1실 원룸 내부 ▲

▼ 내원궁 건 물